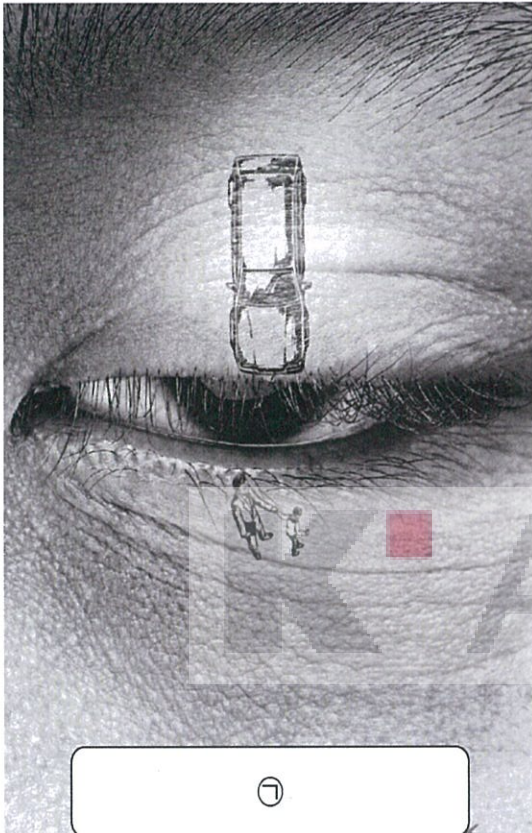


언어능력평가

1. 다음은 공익 광고입니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2점]



- ㉠ 가정 폭력,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② 학교폭력,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③ 졸음운전, 방심한 순간에 생명을 앗아갑니다.
 ④ 교통 법규 위반, 당신의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⑤ 불법에 눈을 감는 것은 위험에 눈을 감는 것입니다.

2. <보기>에 해당하는 광고로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00시는 도심과 교외가 어우러진 곳으로 역사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건물이 혼재돼 있다. 오래된 기업과 신생 기업이 뒤섞인 이 도시에는 다채롭고 활기 넘치는 경제 구성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도시의 생명력이 더해지고 있다. 브랜드 컨설팅 및 디자인 기업가는 이 도시가 늘 변화하고 살아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탄생한 00시의 로고는 도시의 이름을 나타내는 알파벳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도시의 특성을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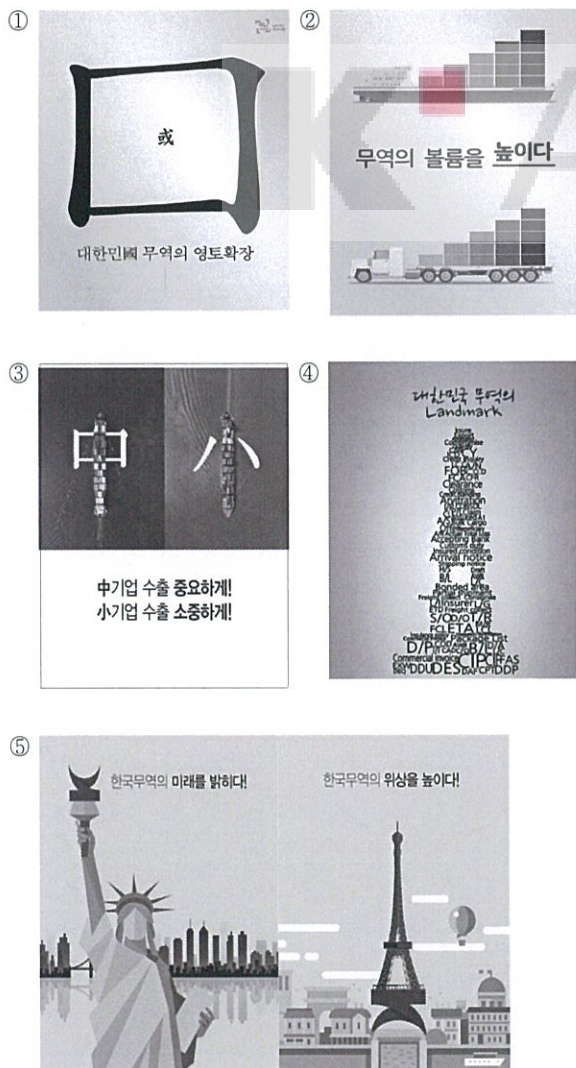
00시는 알파벳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함으로써 도시의 생명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로고를 단색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다양하게 변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악수를 하거나 돈을 지불하고, 일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동작을 취하는 재미 있는 00시의 로고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로고를 통해 00시는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우며 낙관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00시의 로고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자 하는 대범하고 활발한 도시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거리 곳곳에서 생기를 더해주고 방문자에게 잊지 못할 인상 깊은 기억을 남겨준다.

- ①  ② 
- ③  ④ 
- ⑤ 

3. <보기>는 광고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의 일부이다. 회의 결과 선정된 작품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보 기>

- 김 : 이번에 응모된 작품들은 기업의 무역 활동을 돕는 우리 무역공사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면서도 위트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이 : 동감입니다. 글자를 마치 이미지의 일종인 것처럼 시각적으로 구성된 작품들이 많아서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박 : 저는 한자를 참신하게 변형시킨 A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자를 시각적 구성하면서 비유적인 광고카피를 넣은 것이 재미있던데요.
- 김 : 그런 측면에서 여러 글자를 이용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B도 좋은 작품이었죠.
- 이 : 선생님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글자의 시각화와 함께, 이미지와 카피를 모두 대구적으로 구성한 C는 어떠셨는지요? 유사한 발음을 이용한 광고문구의 언어유희도 흥미로웠습니다.
- 최 : 저도 좀 더 강하고 분명한 카피를 내세운 C가 마음에 드네요.
- 김 : 그럼 이제 수상작이 정해진 것 같네요. 저 역시 C를 수상작으로 결정하는 데 찬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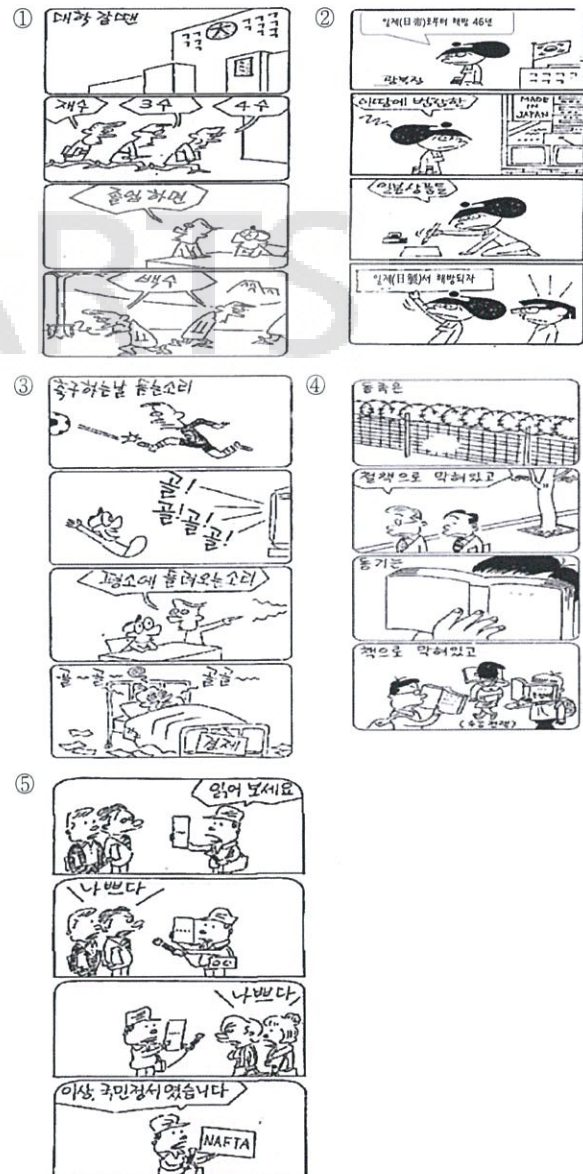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활용한 만화로 적절한 것은?
[2.5점]

<보 기>

만화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언어유희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일찍이 김현이 간파한 바 있듯이 만화의 언어유희는 단순한 말재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세련된 위트의 산물이다.

수사법이 독자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고려하면 언어유희와 언어예술은 사실 분리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만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언어유희는 수사학의 여러 기법을 활용한 것이기도 하다.

만화의 말장난, 혹은 언어유희를 설명하기 위한 수사법 중에는 패사법(卦辭法)이 있다. 패사법은 소리가 비슷하고 의미가 다른 말을 서로 연관지어 사용하는 수사법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동음이의어법(同音異義語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동음이의어법은 그 소리가 동일하고 의미는 다른 말들을 연관지어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예를 들어 '피를 짜다'와 '바닷물이 짜다'에서 '짜다'라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은 수사법을 말한다. 그에 비해 패사법은 소리가 동일한 것이 아니나 비슷하게 발음되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만화가 많아'에서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랑스 문학평론가 르네 지라르는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여, 이 인물들이 텍스트 안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실은 가짜 욕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주체가 대상을 직접적으로 욕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욕망은 제3자에 의해 촉발된 매개된 욕망이라는 것이다. 지라르는 주체가 이런 욕망의 실상과 그 허위성을 깨닫고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종교적 개종에까지 비견하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위대한 소설이라고 주장한다. 1960년대 당시에 이러한 그의 결론은 소설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제로 받아들여졌으나 분석의 독특함과 관점의 참신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첫 번째 저서인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의 서두에서 돈키호테의 예를 들어 대담 소설 인물들의 욕망은 삼각형의 욕망이라 주장한다. 욕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그 대상을 욕망하게 한 타자가 숨어 있다. 돈키호테는 아마디스에 따라, 엠마 보바리는 삼류 소설의 주인공들에 따라 욕망의 대상을 발견한다. 돈키호테-아마디스(전설의 기사)-완전한 기사, 보바리 부인-삼류 소설 주인공-연인은 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완전한 기사가 되려는 돈키호테의 욕망은 매개된 욕망이며, 그런 의미에서 삼각형의 욕망이다.

지라르에 의하면, 모든 욕망은 타자에 의해 매개되고 촉발된 욕망이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욕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욕망하게끔 촉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타자에 의한 욕망은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숨어 있다. 그의 욕망을 촉발시킨 타자, 전범(典範)으로서의 타자는 상상 속의 인물일 수도 있으며 실제의 인물일 수도 있다.

그 욕망의 중개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욕망의 매개자와 욕망의 주체 사이의 거리가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그 욕망이 모방욕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그 거리가 아주 적어 그 욕망이 모방욕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현상이다. 앞의 것을 지라르는 외적 중개(la médiation externe)라 부르고, 뒤의 것을 내적 중개(la médiation interne)라 부른다. 외적 중개에 있어, 중개자는 훌륭한 전범이며, 욕망의 주체는 그를 마치 기독교도들이 예수를 모방하듯 모방한다. 모방은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추구된다. 그러나 내적 중개에 있어서, 타자는 전범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경쟁자가 되어, 타자와 욕망의 주체 사이에는 경쟁상태(la rivalité)가 이뤄지고, 전범은 방해자가 된다. 모방은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부인된다. 욕망의 주체는 전범을 찬탄하면서도 증오하기에 이르는데, 왜냐하면 그와 그의 전범은 같은 대상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타자는 전범이기 때문에 경쟁자며, 경쟁자이기 때문에 전범이다. 경쟁자-전범과 그 사이에는 계속적인 욕망의 오고 감이 있으며, 그것은 갈수록 강화되어, 둘 사이의 차이점은 갈수록 줄어든다.

외적 중개에 의한 것이든 내적 중개에 의한 것이든, 모든 욕망은 중개된 욕망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욕망은 자발적이며,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은 낭만적 환상, 낭만적 거짓이다. 진정한 소설은 그 낭만적 거짓을 드러내, 모든 욕망은 매개된 욕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5점]

- ① 대상에 대한 주체의 욕망은 반드시 타자를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다.
- ② 소설 속에서 주체의 타자에 대한 모방은 인정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한다.
- ③ 르네 지라르는 문학의 위대성은 욕망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소설에서 갈등은 인물들이 사실상 동일한 대상을 욕망하기 때문에 생겨나기도 한다.
- ⑤ 소설에서 주체는 외적 중개를 통해 대상을 공개적으로 욕망하고 내적 중개를 통해 그 욕망을 은밀하게 충족시킨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신데렐라 이야기는 그와 유사한 설화가 전 세계에 100여 개가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착하고 예쁜 신데렐라는 비록 귀족의 딸이나, 새엄마의 학대와 배다른 두 언니들의 심술로, 하녀와도 같은 혹독한 나날을 겪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와 언니들의 심술로 왕궁의 무도회에 가지 못하고 집안 허드렛일을 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포기하려고 할 때, 요정 대모의 도움으로 그녀는 무도회에 갈 수 있게 된다. 요정 대모가 마술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옷과 보석, 마차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유리신을 한 켤레 주었다. 다만 자정이 지나면 모든 마술이 사라진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유리구두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온 신데렐라는 구두를 단 서로 찾아온 왕자와 결혼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줄거리에 덧붙여 지역에 따라 계모와 두 누이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결말이 추가되기도 한다.

- ① 영화: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배다른 누이들은 신데렐라의 욕망을 매개하는 중개자라고 생각해, 누이들이 무도회에 가지 않았다면 신데렐라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결국 경쟁자인 배다른 누이들을 제치고 왕자와 결혼한다는 점에서 내적 중개라고 할 수 있을 거야.
- ② 철수: 신데렐라의 욕망은 신데렐라의 귀족으로서의 체험이나 다른 책을 통해서 촉발되었을 수도 있어. 르네 지라르의 말처럼 모방의 전범은 상상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실제의 인물일 수도 있으니까.
- ③ 민영: 드라마 팬들이 신데렐라 스토리에 열광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신데렐라가 되고 싶기 때문이야. 그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에 열광하고 그들을 통해 대리만족한다면 이들의 욕망은 내적 중개에 의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 ④ 예지: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이 소설 인물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인지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의 욕망의 구조를 그 팬들의 욕망의 구조로 오인해서는 안 될 것 같아.
- ⑤ 정수: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모방한다는 사실을 지라르의 말처럼 단순히 '낭만적 거짓'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욕망이 매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화는 변이와 선택의 공동 작업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윈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변이의 방향은 개선을 향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작위적이다. 진화에서 개선을 향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선택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진화라는 교의를 한쪽 극단에 다윈주의자가 있고 다른 한쪽 극단에 돌연변이론자가 있는 식의 일종의 연속체로 가정할 수 있다. 극단적인 돌연변이론자는 자연선택이 진화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진화의 방향은 돌연변이의 방향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뇌 용적의 증가라는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윈주의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돌연변이에 따라 자연선택의 대상으로 제공된 변이 속에는 작은 뇌를 가진 개체도 있지만 큰 뇌를 가진 개체도 있었다. 그리고 자연선택을 통해 후자가 유리하게 된 것이라고 말이다. 한편 돌연변이론자들에 따르면 돌연변이가 제공하는 변이는 이미 큰 뇌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 있다. 변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자연 선택도 없었다.(또는 자연선택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뇌는 돌연변이에 따른 변화가 뇌를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편향된 이상, 계속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논점을 정리해보자. 진화에 큰 뇌를 향한 편향이 있었다. 이 편향은 자연선택을 통해서만 발생하든지(다윈주의자의 관점), 또는 오직 돌연변이를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돌연변이론자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 어떤 연속체를 상정할 수 있다. 우리는 진화적 편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원천이 거의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상상할 수 있다. 중립적인 관점에 따르면, 뇌의 거대화를 향한 돌연변이 쪽으로 '약간'의 편향이 있었고, 살아남은 개체군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그 편향을 더 강화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진화론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윈주의자와 돌연변이론자의 주장을 결합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가공의 다윈주의자'를 만들어내었다.

㉠ 가공의 다윈주의자의 요소는, 다윈주의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선택의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연변이적 변이에는 어떤 편향도 없다고 말한 내용 속에 들어 있다. 실제 다윈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말은 돌연변이가 적응적 개선의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편향되어 발생하는 경우란 없다는 뜻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보다 과장된 가짜 다윈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말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화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미 설명했듯이 그런 종류의 관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논의로 치더라도, 가공의 다윈주의자는, 몸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라면 전능의 힘을 지닌 선택을 통해 무한히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칼룩과도 같은 것으로 믿고 있는 자로 간주된다. 실제 다윈주의자와 가공의 다윈주의자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7. 윗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진화에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 ② 돌연변이는 모든 개체에게서 환경에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다.
- ③ 좋은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 ④ 진화론을 비판하는 이들이 다윈주의와 돌연변이론의 허점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허구적 존재이다.
- ⑤ 뇌의 용적이 커진 것은 뇌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8. 다음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눈 대화이다.

㉡, ㉢,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5점]

<보 기>

사회자: 항상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되듯이 천사는 등쪽에 돌아난 날개와는 달리 깃털이 나 있지 않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박쥐는 새나 익룡처럼 따로 독립된 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쥐나 새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팔은 날개로 변했으므로 먹이를 잡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설사 사용할 수 있더라도 아주 서툴렀습니다. 그렇다면 박쥐는 왜 천사의 날개와 같은 것을 진화시키지 않았을까요?

㉡ : 박쥐가 천사와 같은 날개를 갖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연선택이 천사와 같은 날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 한가운데 날개가 돌은 돌연변이 개체는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연선택에 따라 그런 개체는 생존에 불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화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 : 자연선택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선택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결합이나 기형을 제거하는 일 정도입니다. 자연선택은 진정한 의미에서 건설적인 진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지상에 아주 오래전에 살고 있던 동물의 개체군 중에서 손가락을 길게 늘여 그 사이에 피막을 가진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돌연변이는 점차 빈번하게 나타나고 마침내 개체군 전체가 날개를 가지게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자연선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박쥐조상의 체질에 날개를 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내재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이지요.

㉣ : 글썄요. 가장 좋은 진화의 방향은 박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팔을 가지는 것이겠지요. 쥐들은 먹이를 잡을 때면 항상 두 개의 앞발로 먹이를 움켜쥐는데, 박쥐는 팔이 없어 지상에서는 무척 서툴러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진화하지 않은 것은 돌연변이가 필요한 변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	㉢	㉣
① 실제 다윈주의자	가공의 다윈주의자	돌연변이론자	
② 가공의 다윈주의자	실제 다윈주의자	돌연변이론자	
③ 돌연변이론자	실제 다윈주의자	가공의 다윈주의자	
④ 돌연변이론자	가공의 다윈주의자	실제 다윈주의자	
⑤ 가공의 다윈주의자	돌연변이론자	실제 다윈주의자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 신체와 기술에 대한 관점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 변화는 결국 인간 신체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쳐, ‘포스트휴먼(post-human)’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포스트휴먼을 간단히 정의하면 ‘기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의 이미지로 우리는 ‘사이보그(cyborg)’를 떠올릴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생물학적 몸은 도태되고 첨단 기술에 의해 완전히 성능이 증강된 인간 이후의 존재자가 출현하는데, 이 시점에 오면 진화의 방향은 기술에 의해 조정된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존재가 물리적 몸의 제한을 벗어나 ‘정보(information)’로 치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따라서 인간 존재를 규정하던 몸은 기술매체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정보를 담는 하나의 ‘기계’로 전락한다. 여기에서 정보란 단순히 편지에 담긴 내용이나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 같은 메시지나 메시지의 의미가 아니라 우주 혹은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인간은 선택의 여지없이 태어날 때 주어진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다면, 포스트휴먼은 자신의 몸을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이나 모습으로 대체하고, 자기가 처할 여러 가상현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복수의 가상현실 속에 사는 포스트휴먼은 마치 개인용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바꾸어도 기능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과 같은 생체적 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물리적 기반을 바꾸어가며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가령 인간을 구축해왔던 문화, 민족, 인종, 젠더, 혈통 등 신체와 연관된 모든 위계관계를 끊고, 어디로든 이동가능하고 어디서든 현현(顯現)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앞으로 포스트휴먼은 자신의 지적능력을 여러 가지 상이한 물리적 기반의 컴퓨터에 업로드시켜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설령** 그 몸이 생물학적 수명을 다해 소멸한다 해도, 인간은 다른 컴퓨터로 자신의 삶을 업로드하여 영생할 수 있게 된다.

스텔락(Stelarc)은 ‘사이보그 퍼포먼스’에서 기술매체에 의해 변화되는 신체의 위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자신의 몸에 실제로 뉴미디어를 혼합해 온 그는 지난 30~40년 동안 퍼포먼스 예술에서 신체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었으며 초기 디지털 퍼포먼스의 역사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기계와 신체를 결합시키거나 타인에 의해 자신의 신체가 조정되는 방식의 퍼포먼스, 인간이 아닌 디지털 알고리즘이 신체를 조정하는 형식의 퍼포먼스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텔락은 기술을 이용해 한 개인의 신체성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보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다른 신체들과 연결하거나 신체를 수정하여 물리적으로 기술과 통합시켜 효과적으로 전자세계와 공간 속에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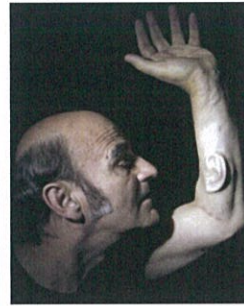
스텔락은 “신체는 진부하다.”라고 말하고 뉴미디어 기술을 신체의 생물학적인 능력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중력이 아니라 ㉡정보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가 신체를 신체 이상으로 상승시켜 ‘진화 이후의’ 신체의 형태와 기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체는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몸을 가지고 게임을 할 때처럼 부유하거나 도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이버 공간의 매트릭스가 신체 안으로 들어와 몸의 생리학과 존재론을 진척시키고 재구성하게 된다. 영화 <트랜센던스>(Transcendence, 2014)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하여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에도 삶을 지속하는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보가 바로 무능하게 된 신체를 지탱해 줄 인공기관 자체가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작업은 포스트휴먼의 양상을 매우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은 인간의 신체성을 의미한다.
- ② ㉡은 지식이나 지식을 모아둔 자료를 의미한다.
- ③ ㉡의 물리적 기반은 앞으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 ④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⑤ 포스트휴먼은 ㉠이 소멸해도 ㉡을 지속시킬 수 있게 된다.

10. 윗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스텔락의 대표작인 <팔 위의 귀> (Ear on Arm) (2006)는 그의 왼팔에 연결로 배양한 인공 귀를 이식한 것이다. 스텔락은 10년이 넘는 의학적 준비 과정을 거쳐, 연골을 배양해서 귀를 만들고, 자신의 왼쪽 팔에 이식했다. 이식 수술 후 귀를 자라게 하기 위해 많은 양의 호르몬제를

직접 몸에 투여했고,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려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팔 위의 귀>는 그의 신체 중 일부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세포가 자라서 신체의 일부가 되었지만, 아직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와이파이가 연결된 마이크를 추가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 누구나 접속하면 스텔락이 24시간 듣고 있는 소리를 함께 듣게 하는 것이다. 스텔락은 “원래 있는 두 귀는 나를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귀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전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말한다. 즉, 이 귀는 ‘수신’의 역할과 ‘송신’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추후에 스텔락은 이 귀에 통신에 필요한 마이크를 삽입하고 이 마이크를 송신기와 연결할 것이다. 수신기와 스피커는 스텔락의 입 안에 이식될 예정인데, 만약 누군가 스텔락에게 전화를 하면, 스텔락은 <팔 위의 귀>를 통해 멀리 떨어진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스텔락의 입안에서 들리게 된다.

- ① <팔 위의 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숙명적으로 타고나는 신체성을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시도이군.
- ② 스텔락은 <팔 위의 귀>를 통해 청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일반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매우 작은 소리까지 들으려 하는 군.
- ③ 스텔락은 자신의 의지대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타인과 귀와 입을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인의 통제를 받게 될 수도 있겠군.
- ④ <팔 위의 귀>는 신체와 기계, 인터넷의 결합을 통해 신체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새로운 신체를 만들려는 작업이군.
- ⑤ 스텔락이 듣는 소리를 다른 이들도 함께 듣는다는 점에서 <팔 위의 귀>는 자신의 신체와 다른 이의 신체를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소음이 있다고 해서 독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독서에 집중하기 힘들거나 간혹 독서를 중단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소음은 생각만큼 독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범한 독자라도 한번 독서에 빠져들면 그의 관심이 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글이 세계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주변의 사물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와 함께, 모두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 같다.

이와 동시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을 둘러싼 주변 사물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당신이 응시하고 있던 것마저 사라진다. 당신이 읽고 있던 책 그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 검은 활자들은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생각으로, 이미지로, 그리고 목소리나 다른 소리들로 바뀌어 등장한다. 읽기의 과정들은 의식적인 행위에서 무의식적인 행위로 전환된다. 글의 내용에 더 깊이 빠져드는 순간 당신은 ㉠자동 조종 장치에 얹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마법이 성취될 때에야 독서는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타이포그래피가 비가시적일 때인 이 '이중의 사라짐 마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 이론의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비어트리스 위드(1900~1969)다. 그녀는 타이포그래피를 유리에 비유했다. 예컨대 창문을 볼 때 당신은 창문 자체를 보려 하는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풍경을 보고 싶은 것인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창틀이 전망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처럼 어수선하지 않은 글자와 그 배열이 글을 가장 잘 전달한다고, 그녀는 믿었다. 만약 반대로 창문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고 그림까지 그려져 있다면 그 너머로 풍경을 보기는 힘들다. 즉, 타이포그래피는 저자와 독자 사이에 끼어드는 방해 요소가 되지 말아야 한다. 배경으로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글꼴은 가능한 한 평범해야 하며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이다.

'시끄러운' 타이포그래피로 인해된 글을 독자들은 얼마나 잘 읽을 수 있을까? 만약 글이 아주 재미있다면, 또는 당신이 독특한 디자인에 대해 관용적이라면, '가시적인' 타이포그래피로 인해된 글을 읽으면서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법을 성공적으로 경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짧은 글에서는 동물 모양의 글자를 읽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글이 길어지면 이러한 독서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독자는 이미지를 '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문장의 뜻도 '읽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유명 디자이너 ㉢데이비스 카슨은 『인쇄의 종말』에서 다음과 같이 독자들을 책망하였다.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코 혼동하지 마십시오."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곧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말을 통해 그는 비전통적인 디자인의 자유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모든 법칙과 이론들을 거부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루크트 슈비터스의 '타이포그래피 테제' 가운데 다음의 항목을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 이미 했던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다른 방법을 써라." 사실상 모든 신조를 거부하는 신조인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는 어김없이 독자들이 읽기 어려운 텍스트를 만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텍스트를 읽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일은 없다. 하지만 읽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텍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독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읽어 나갈 수 없는 텍스트가 된다는 뜻이다. 운전에 비유한다면 마치 엔진이 계속 꺼지는 것과도 같다. 그러면 읽기의 과정은 계속해서 주의와 노력을 요하게 되고, '읽는다'는 독자의 제일 목적은 방해를 받게 된다.

1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점]

- ① 독서와 집중
- ② 타이포그래피와 독자
- ③ 타이포그래피의 마법
- ④ 타이포그래피의 혁신
- ⑤ 소통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12. 밑줄 친 ㉠과 그 원리가 가장 유사한 것은? [2.5점]

- ①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려 실제와 다른 왜곡된 기억을 갖게 되는 현상
- ② 어린 시절에 먹던 음식을 먹으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과거가 떠오르는 현상
- ③ 조용한 사무실보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적당한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더 몰입이 잘 이루어지는 현상
- ④ 영화관에서 새로 자막이 나와도 금방 적응하여 나중에는 새로 자막이 나왔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
- ⑤ 화면을 시청하는 피실험자에게 화면 속 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라고 하면 화면의 커다란 고릴라는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

13. 윗글의 내용에 따라 아래 <보기>의 (가)와 (나)를 해석한 내용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It's not about knowing all the
gimmicks and phototricks, if you
haven't got the eye, no program
will give it to you.

(가)
(나)

- ① (가)는 '시끄러운' 타이포그래피에 속할 거야.
- ② (나)의 독자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법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거야.
- ③ (가)와 같은 타이포그래피는 분량이 많은 책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거야.
- ④ ㉡비어트리스 위드는 (가)와 같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독자들이 더 관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거야.
- ⑤ ㉢데이비스 카슨은 (나)와 같은 문서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신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야.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학혁명 이전의 자연관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자석들은 왜 서로 잡아당기거나 밀어낼까? 상처에 약을 바르면 왜 나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르네상스 자연주의에서는 자연을 살아있는 신비한 생명체로 파악하여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기는 이유는 서로가 공감을 하기 때문이고 N극과 S극이 밀치는 이유는 서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물이 성장하고, 동물이 스스로 지각하여 움직이는 모든 운동의 원리를 영혼으로 보았다. 이렇게 자연을 마치 생명과 감정이 있는 인간처럼 여기는 르네상스 자연주의는 신비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근대과학은 자연에서 신비로움을 제거해 버렸다. 자연은 객관적 실체로 이루어져 있고 수학적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져다주었다. 이런 근대과학의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데카르트와 ㉡뉴턴이다.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은 자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자연현상이란 이런 물질들의 운동에 의해 일어난다고 전제하고 각종 자연현상들을 미세한 물질들의 직선운동과 충돌로 설명했다. 앞에서 르네상스 자연주의자들이 자석을 공감, 반감을 이용해 설명했던 것에 비해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에서는 입자와 운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석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고 자석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나사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자석의 구멍을 통해서 작은 나사들이 통과하는데, 나사들의 운동 방향에 따라 자석은 서로 끌리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자연주의에서 자석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지만, 기계적 철학의 눈으로 본 자석은 신비로움을 잃었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자연을 합리적이고 명쾌하게 이해가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었다. 데카르트에게 자연은 단지 기계에 불과했으며, 그 자체의 목적이나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자연에서 영혼을 제거시켜 중세적 자연관을 밀어내고 기계적 세계관을 정당화했다. 그러므로 기계적 철학에서는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구분조차 불필요했다. 자연은 기계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자연계의 만물은 물체의 위치와 운동으로 설명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데카르트는 17세기 과학혁명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냈지만 '자연은 정확한 수학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완전한 기계'라는 그의 생각은 일생 동안 하나의 가설로 남아있어야 했다. 데카르트의 꿈을 실현시키고 과학혁명을 완성한 사람은 뉴턴이었다.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에서 '운동'이라는 개념을 이어받아 뉴턴도 자연현상의 기본을 운동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운동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데카르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뉴턴은 수학적 성격을 합친 '힘'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운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다시 말해 '힘'을 운동의 원인으로 설정하여 가속도, 속도, 물체의 움직이는 궤적 등을 계산하는 역학의 방법을 정식화했다.

뉴턴은 결국 데카르트를 뛰어넘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데카르트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다. 복잡한 자연을 단순하게 분해해서 이해하는 방식이나, 운동에서 자연현상의 근원을 찾고 그 운동을 수학적 언어로 풀어내려고 했던 점 등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경향이다. 우리에게 있어 데카르트와 뉴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했다는 점에 있다. 20세기 초에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는 듯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세계는 데카르트와 뉴턴이 확립해 놓은 고전역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14. 위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대상을 세분화하여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사례를 통해 특정한 현상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를 대조하여 하나의 절충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시대별로 변화하는 인식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⑤ 복잡한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5. ㉠과 ㉡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이 ㉠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 ② ㉠과 ㉡이 상호 교류하면서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 ㉠의 논리에 근거를 제공하여 결론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이 ㉠의 논리를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제시된 결론을 확정짓고 있다.
- ⑤ ㉡이 ㉠의 결론을 발전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16.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전역학의 법칙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양자역학에 의하면 운동은 확률론적으로밖에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현재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도 미래에 일어나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정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고전역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고전역학은 결정론적 해석을 통해 자연현상에서 우연성을 배제하고 운동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자연 상태에서 운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에 다양한 조건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운동의 결과를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었다.

- ① 고전역학의 법칙은 우연적인 현상인 힘에 의존해서 운동의 결과를 계산하려고 하였고.
- ② 고전역학의 법칙은 운동의 외적인 요인만을 강조하여 신성한 자연의 힘을 부정하고 있군.
- ③ 고전역학의 법칙은 운동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군.
- ④ 고전역학의 법칙은 운동의 결과에 항상 변화하는 자연현상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군.
- ⑤ 고전역학의 법칙은 충돌하는 입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음 정도로 작기 때문에 운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하며, 가축과 사람이 날마다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의 시기를 사육시대로 명명할 수 있다. 사육시대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축의 울음소리를 직접 들으며 자랐고, 동사나 명사를 배우기 전에 가축의 울음소리를 먼저 흉내냈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시간적인 동시에 공간적인 것이어서, 오늘날에도 사육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인들에게 사육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생활양식에 해당할 것이다. 사육시대에는 어린아이 일지라도 일상적으로 가축들의 교미 장면을 목격했으며, 가축을 도축할 때의 선혈이 낭자한 장면을 자주 경험했다. 고기가 포장되어 유통되기 전, 20세기 전반까지 사람들은 직접 키운 닭과 수탉지를 잡았고, 시장의 도축업자들은 드러내놓고 고기를 도려냈다. 돼지와 양이 도축되는 모습은 수세기 동안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반면 후기사육시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후기사육시대의 사람들은 가축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가므로 가축이 교미하고 출산하며, 도살 당하는 과정을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동시에 애완동물 시장은 크게 발달하여, 반려동물로 불리는 소수의 동물들과 인간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후기사육시대는 가축이 제공하는 식품, 직물, 가죽 등을 여전히 풍부하게 소비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사육된 동물이 제품으로 바뀌고 소비되는 산업적 과정에서 죄의식이나 수치심 혹은 역겨움을 느낀다. 이 점이야말로 후기사육시대가 초래한 모순의 일부이다. 사육동물은 사회가 소비하는 축산품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광범위하게 번식되고 도축되지만, 그런 생명현상의 관찰은 금기시된다.

그러나 생명현상에 대한 환상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후기사육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성적인 환상을 부추기고, 사람들은 야생동물의 다큐멘터리나 범죄 현장, 전쟁터 등의 뉴스를 통해 피에 대한 환상을 충족한다. 영화나 소설 등의 매체는 점차 강도를 높여 가며 성과 피를 다루고, 취향의 한계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려 든다. 물론 전근대적인 문화 역시 폭력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고 정복, 전투, 약탈, 희생제물, 참수형 등의 섬뜩한 유혈 장면이 수시로 행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낯것 그대로의 현실이었으며, 잔혹함이 특별히 부각되지도 않았다. 그것에는 환상이 개입될 어떠한 여지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사육되어 고기를 제공하는 가축에 대한 동정심, 그런 사육 환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박테리아,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오염에 대한 공포, 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 생명체를 먹는 것에 대한 거리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후기사육사회에 들어 채식주의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기의 생산량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육류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선별적인 채식주의의 확산은 생산량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자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에서 기인된 후기사육시대의 역설적인 현상이다.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가공 처리하는 데 대해 실재적, 잠재적 채식주의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그런 비인간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축산업자들은 고기 소비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17. 위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내용으로 적절 한 것은? [2.5점]

- ① 인간과 가축의 관계 변화에서 야기되는 후기사육시대의 역설
- ② 가축 가공 방법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후기사육시대의 특징
- ③ 공장식 축산과 항생제 사용에서 야기되는 후기사육시대의 공포
- ④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의 폭력성에서 나타나는 후기사육시대의 문제점
- ⑤ 채식주의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통해 살펴보는 후기사육시대의 비인간성

18. 사육시대와 후기사육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사육시대는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후기사육시대는 도시생활을 기반으로 한다.
- ② 사육시대는 가축들과 관련된 생명현상이 일상인 반면, 후기사육시대에는 생명현상의 관찰과 접촉이 금기시된다.
- ③ 사육시대는 가축의 사육, 도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후기사육시대는 산업의 일부로써 가축이 생산된다.
- ④ 사육시대는 가축의 고기 소비가 제한적인 반면, 후기사육시대는 가축의 고기 소비는 줄고 부산물 소비가 증가한다.
- ⑤ 사육시대는 가축과 사람의 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반면, 후기사육시대는 사람이 일부의 가축과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19.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에 대해 나는 대화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배우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영화 <옥자>는, 온라인 스트리밍 최대 업체로 명성이 높은 넷플릭스가 제작비 전액을 투자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에게 슈퍼 돼지 '옥자'는 10년 간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이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나타나 갑자기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 간다. 미란도는 식용 돼지 개량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슈퍼돼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미자는 비밀 동물 보호 단체인 ALF(Animal Liberation Front)의 도움을 받아 옥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서고, 우여곡절 끝에 미란도 그룹의 실험실에 갇혀 있는 옥자를 찾아낸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고기 샘플을 추출하고 역지로 짝짓기를 시도하는 등 슈퍼 돼지를 얻기 위한 각종 실험이 진행 중이었다. ALF는 동물들이 고문받고 학대당하는 장면을 블랙 박스로 찍어 세상에 폭로하고, 결국 미자는 옥자를 구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옥자>는 날카롭게, 또한 직접적으로 자본과 육식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비판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 ① 민희 : 영화 <옥자>는 육식이 날로 증가하는 우리 시대를 비판한 영화라는 점에서 참 흥미로웠어.
 ② 영수 : 맞아. 특히 후기사육시대에 들어 행해지는 가축의 산업적 생산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폭로한다는 점에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할 수 있어.
 ③ 민희 : 하지만 육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 반려동물인 개까지 식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후기사육시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야.
 ④ 영수 :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야. 미란도에 맞서 ALF가 활동하는 것을 봐. 동물의 학대가 늘어갈 수록,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도 더욱 늘어날 거야.
 ⑤ 민희 : 그렇게 희망적이기만 할까? <옥자>라는 영화 자체가 막대한 자본에 의해 만들어졌잖아. 미디어는 우리에게 스펙터클한 환상만을 보여주려고 한다니깐.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경림, 「길」

(나)

㉡ 다음 생애에 여기 다시 오면
 걸어 들어가요 우리

㉢ 이 길을 버리고 바다로

넓은 앞치마를 펼치며
 누추한 별을 행구는
 나는 파도가 되어

바다 속에 잠긴 오래된
 노래가 당신은 되어

김소연, 「강릉, 7번 국도」

(다)

蕭颯石隅村 쓸쓸한 석우촌

前作三叉岐 앞에는 세갈래길

㉤ 二馬鳴相戲 두 말 서로 희롱하며

似不知所之 저 갈 곳 모르는 듯

一馬且南征 한 말은 남으로 가고

一馬將東馳 또 한 말은 동으로 가야 하네

諸父皓須髮 숙부님들 머리엔 백발이 성성하고

大兄涕交頤 큰형님 두 뺨엔 눈물이 줄을 잇네

壯者且相待 젊은이는 다시 만날 기약이나 한다지만

耆耄誰得知 노인들 앞일을 누가 알리오

斯須復斯須 조금만 조금만 하는 사이에

白日已西敝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졌네

㉥ 行矣勿復顧 앞만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지 말고

電馳留前期 앞으로 다시 만날 기약이나 새기면서

정약용, 「석우별(石遇別)」

20.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길'과 인간의 삶을 비교 대조하면서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② '길'에 대한 성찰을 통해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시적 화자의 개인적 체험을 역사적 인식으로 확장시켜 현실극복의 의지를 보여준다.
 ④ 노년의 시적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⑤ '길'이 가진 갈래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길에 비유하고 있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밖'과 '안'이라는 대조적 시어를 통해 '교훈'과 '성찰'이라는 길[道]의 다층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제한적 현실 상황을 직시한 상태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동물의 무의미한 행위에 빗대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별과 서글픈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주어진 현실을 수긍하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품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22.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 시를 감상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보 기> —

역사주의 비평, 전기 비평은 문학 연구에서 역사적 사실, 저자의 전기적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비평이다. 문학적 가치의 영원불멸을 운운하는 말에 우리의 귀는 젖어 있지만 잠시만 생각해봐도 작가는 자기가 사는 시대에 속하며 그 시대의 제약을 다소간에 안 받을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작품이든지 다 구체적인 시대에 구체적인 인물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여졌다. 그러므로 한 작품을 평가할 때 작가의 삶이나 그가 속한 시대의 역사를 고려하고 그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비록 작품의 내적 의미나 형식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다소 구식의 비평 방식으로 간주되고는 있으나 여러 실증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작품 감상의 1차적 단계에 해당한다. 간혹 역사와 전기의 재구성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삶과 역사에 대한 면밀한 탐구가, 작품의 의미를 심화하기도 증대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카데미 비평의 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 ① 민영: (나) 시인이 현재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이 시는 현재의 연인에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의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 ② 정희: (가)의 화자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노년의 시인이라고 본다면,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신념에 대해 성찰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 신념이 사람을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신념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 ③ 지훈: (나) 시인이 평소에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이 시에서 '당신'은 자신이 새롭게 쓰고자 하는 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
- ④ 영미: (다) 시인과 그 숙부, 형제들이 모두 귀양을 가서 다시는 서로 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시의 답답함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져.
- ⑤ 미진: (다)에 묘사된 사건이 조선 후기의 천주교 박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것이 가족의 이별이라는 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어.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한 농부가 자기 논이 벼가 자꾸 시들고 땅도 병들어가자 비료와 농약을 안 치고 자연농법으로 한번 농사를 지어보려 하나 판리는 이를 못마땅해 여긴다. 할 수 없이 그는 자기가 지은 쌀을 직접 도시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또 거름으로 쓸 인분도 구할 겸 서울로 올라온다.

농부: ㉠야, 여그가 서울이로구나. 역시 크긴 크구먼. 없는 것이 없다는 서울인다. ㉡그나저나 쌀을 어디 가서 판다냐? (사방을 살펴보다가) 옹지, 저그 쌀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봉게, 저그 가면 된 수가 나겠구먼.(다가간다.)

싸전: (쌀을 퍼담는 시늉을 하고 있다가) 어서 오이소. 쌀 살라고 왔능고?

농부: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쌀을 팔러 왔ندی요.

싸전: 보소, 여그가 싸전이요 싸전. 알고 하는 소리고?

농부: 내 쌀은 아주 좋은 쌀이요. 농약을 한 번도 안 친 쌀이요.

싸전: (술깃해서) 그라든 무공해 쌀 말잉고? 그란데 쌀은 어디 있능고?

농부: 아 지금 우리 논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싸전: 이 양반이 누굴 놀리나. 물건도 없이 장사한단 말이오?

농부: 아따 서울사는 부인네들은 마늘 양파 심기도 전에 밭떼기를 한다는디, 지금 우리 논에 다 자라서 인제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요.

싸전: 보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뭘 죄에 해당하는지 아요? 유통질서 교란죄라고 하는 거요. 유통질서를 교란하면 특정범죄가 가중된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요?

농부: 아니, 내 쌀 내가 파는디 뭘 유통범죄요?

싸전: 이 양반이 지금 뒤질라카나. 빨리 가소. 일 나기 전에.

농부: (싸전을 나와서) 쪽제비같이 생겨갖고 되게 따따따하네. (다시 마당을 헤매다가) 위매 웬 집이 이렇게 크다냐. 야, 여구는 사람이 많이 살겠구먼. 위매, 그런디 대문이 위디여? 제기랄 어디 한번 아무데나 대고 불러보자. 여보쇼. 여보쇼. (개가 짖자 깜짝 놀란다.)

가정부: ㉢(등장하여 청소하는 시늉하다가) 그래, 알았다 메리야. 좀 조용히 해.

농부: (대문을 발견하고) 위매 이것이 뭐다냐? 꼭 쪽쪽지같이 생겼구만. (초인종을 누르는 시늉)

가정부: (인터폰을 들며) 누구세유?

농부: 저, 쌀을 좀 팔라고 왔ندی요.

가정부: 우린 쌀 주문한 적 없는디유.

농부: (농청스럽게) 저도 주문받은 적 없는디유. (의아해져서) 여보쇼,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얼굴 좀 내놓고 얘기합시다.

가정부: 지는유, 아저씨 얼굴을 다 보고 있어유. 웬건만 얘기하세유.

농부: 우리 쌀 아주 좋은 쌀인디 좀 들여 농으슈.

가정부: 이 집은유, 무공해쌀이 아니면 안 먹어유.

농부: (반감해) 예, 내가 팔려는 쌀이 바로 농약 하나도 안 친 무공해 쌀이여유.

가정부: 아니, 아저씨가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어떻게 알아유? 이 집은유, 특별히 재배하는 데가 따로 있단 말이여유.

농부: 아따, 사람 되게 못 믿네. 우리 쌀에 벌레 먹은 걸 보면 알 거 아녀요?

가정부: 뭐유? 벌레먹은 쌀을 어떻게 먹어유? (누가 찾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네, 사모님 웬 정신빠진 사람이 날더러 벌레 먹은..... 네 알었시유. 메리 목욕물 아까 다 받아놔시유. (인터폰을 놓는다.)

농부: 아파, 문을 꼭꼭 잠가놓고 갑갑해서 뭐렇게 산다냐?

길을 헤매던 농부 갑자기 배 아픈 표정을 지으며 급히 변소를 찾으러 두리번거린다.

농부: 아고, 근디 물갈이를 해서 그런가? 왜 이리 배가 살살 아프냐? 어디서 뒀간을 찾지?

(중략)

농부: (잠깐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 한바탕 법석을 떨다 봉계 똥이 속 들어가 버렸네. 아이고 그란디 서울에 쌀 팔러 왔다가 쌀은 하나도 못 팔고 큰일났고만. 가만히 보니까 서울이란 데가 꼭 막힌 곳이구먼. 뒀간까지도 꼭 막혀서 이 지경이니 말이여. 가만 있거라. 뒀간 돌아가야 할 것이 안 돌아가고 중간에서 꼭 막힌 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여. 똥이 거름이 돼야 밥이 제대로 생기는 것인디 그것이 잘못되야 버렸어. 가만있자. 아까운 똥을 서울에다 버릴 게 아니라 꼭 참았다가 내 논에다 쪼야 쓰겠다. 자 그럼 나 시골로 도로 갈라네. (불림조로) 가네 가네 가네 내 똥 누르고향 가네.

㉔풍물 장단에 맞춰 뒹뒹똥 마당을 한 바퀴 거꾸로 돌아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다.

농부: (땅에게) 야들야 나 왔다. 근디 나가 오긴 왔는데, 쌀도 못 팔고 느그들 줄 밥도 못 가져왔다. 그러디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많이 배웠다. 느그들 밥 달라고 했지. 근디 서울은 느그들 줄 밥이 다 어디로 흘러가 버렸더라.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라. 내가 서울서부터 참고 온 내 똥이라도 퍼질러 써서 줄 탱게. 조금만 참어. ㉕(관객들에게) 같이 한번 힘 좀 써 보더라도. 예잇! (장단에 맞춰 똥을 내 썬다는 춤을 한바탕 추고 나서) 위대 시원하다.

해: (이 광경을 보고 대견한 듯) 어이 비, 한번 살려 보드라고. 저놈이 이제 정신을 차렸고만.

비: 그리여 저 놈이 그중 나온 놈이여. (땅에게) 어이, 땅. 내가 살포시 내려 앉을 탱게 잘 받아야 써, 알겠제?

땅: 그리여, 느그들이 오는 것은 언제든지 반갑당게.

농부: (불림조로)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똥 먹고 살아나라.

풍물에 맞춰 모두들 활기 있게 땅을 도로 일으며 살려내는 춤을 춘다.

-김지하 원작임진택 각색 「밥」

23. 윷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농부'는 쌀을 팔기 위해 농약을 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 ② '농부'는 쌀 판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도시에서 사기를 당한다.
- ③ '싸전'은 농부가 유통질서 교란죄를 범할까봐 걱정이 되어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 ④ '가정부'는 농부가 무농약 쌀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쌀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
- ⑤ '땅'은 '농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

24. 윷글의 창작 의도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현재 농사 방법의 문제점을 꼬집고 농사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 ② 자연적 순환이 막힌 현실을 비판하고 원활한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 ③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 ④ 교양없고 무식한 이들의 행동을 지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 ⑤ 불신풍조가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25. <보기>는 윷글을 공연할 때의 갈래적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윷글을 공연하기 위해 ㉑~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보 기>

마당극은 말 그대로 마당에서 행해지는 공연으로, 무대에서 공연되는 극과 형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관중들은 마당 주위에 빙 둘러앉거나 서서 구경하게 된다.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객과의 만남, 관중의 집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극에 대한 관중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자유롭다. 그리고 무대극 같으면 사실적·상징적 장치에 의해 극중 상황 및 장소를 짐작할 수 있지만 마당극에서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 장치, 소품, 의상, 분장 등의 보조수단을 배제 또는 간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미학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적은 수의 인원으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는 경우도 있다. 마당극에 등장하는 인물은 개인이자기보다는 계층 또는 직업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 일인다역(一人多役)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① ㉑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객석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대사를 하면 관객이랑 잘 소통도 되고 더 재미있겠다.
- ② ㉒ '농부'가 쌀의 판로를 찾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그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쌀을 무겁게 들고 다니며 연기하는 것이 좋겠어.
- ③ ㉓ '가정부' 역할을 '싸전'을 맡았던 배우가 하면 어떨까? 역할의 변화를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소품을 들고 나오면 될 것 같아.
- ④ ㉔ 서울 풍경에서 시골 풍경으로 사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 무대 전환에 신경 써야겠어.
- ⑤ ㉕ 관객들이 일어나면 장내가 복잡해지니까 관객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박수나 환호 정도만 하게 잘 유도해야 돼.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1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잦아들 무렵인 1917년 10월 25일, 러시아에서 다수 노동자와 농민, 즉 볼셰비키가 권력을 쟁취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겨울 궁전을 소비에트 혁명군이 점령하여 사회주의 혁명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소비에트 혁명정부는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적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며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했다.

(나) 유럽 러시아에서 살다가 러시아 혁명을 맞이한 조선인들은 혁명 뒤에 세 해 동안 러시아를 휩쓴 내전 시기에 대개는 '손에 못이 박힌 노동자들'의 정당을 표방하고 소수민족의 권익을 옹호하는 강령을 가진 볼셰비키당(공산당)의 편에 섰다. 그들의 붉은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활약한 조선인도 있었다. 고종의 명에 따라 러시아 제국에서 조선의 국권 수호를 위해 애썼던 이범진의 아들 이위중은 혁명 과정에서 볼셰비키 편에 섰고 붉은 군대에 들어가 1920년부터는 시베리아에서 반혁명군과 싸웠다. 한국인의 러시아 혁명 참여는 시베리아 동부와 연해주뿐만 아니라 우랄 산맥 서쪽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다) 이들이 촉발하려 애썼던 세계 혁명이란 실질적으로는 유럽의 혁명, 더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혁명이었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충분한 힘과 경험을 지닌 노동계급과 노동자 정당이 있는 독일에서 러시아 혁명을 본받아 일어날 사회주의 혁명은 자연스레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 전체로 번질 터이며,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1차 세계대전이라는 구렁텅이에 빠뜨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터였다. 그러나 볼셰비키의 예상은 어긋났다. 러시아의 10월 혁명 한 해 뒤에 독일에서 일어난 사회 혁명이 실패했던 것이다. 유럽의 자본주의 체제는 10월 혁명으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라)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지구 북반구의 대서양 양안(兩岸)에 충격을 주며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를 열었다면,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키며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현대를 열었다. 프랑스 혁명처럼 러시아 혁명도 한 나라의 체제 변혁으로 끝나지 않은 국제 혁명의 성격을 띠었다. 볼셰비키도 스스로를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을 세계 혁명의 전위(前衛)로 자리매김했다. 1920년대 중반까지 그들은 러시아 혁명이 세계 혁명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다.

(마) 애초의 예상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유럽에서의 실패가 혁명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럽의 피억압 계급보다 오히려 제국주의의 침탈에 시달리는 아시아 대륙의 피억압 민족들이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더 반겼고, 이런 파급도 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셰비키가 내건 제국주의 타도의 기치는 자본주의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젊은이들도 러시아 혁명의 자장 밖에 있지 않았고, 조선의 해방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혁명 러시아로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1917년 이후 한국의 역사는 러시아 혁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바) 러시아 지역 너머 한반도에서도 러시아 혁명에서 조국과 인민의 해방이라는 꿈을 이룰 가능성을 찾은 조선인들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자 혁명 러시아의 편에 서서 반혁명과 싸웠다. 일본과 싸우고자 혁명 러시아에 도움을 바라는 조선인과 세계 혁명을 염원하는 혁명 러시아는 서로 협력을 모색했다.

26. (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나)-(바)-(마)-(라)-(다)
- ② (라)-(다)-(마)-(나)-(바)
- ③ (라)-(마)-(나)-(바)-(다)
- ④ (마)-(나)-(바)-(다)-(라)
- ⑤ (마)-(바)-(나)-(다)-(라)

27. 밑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2.5점]

- ① 러시아 혁명은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노동자와 농민이 연합한 소비에트 혁명군에 의해 일어났다.
- ② 러시아 혁명에서 내건 제국주의 타도의 기치는 당시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러시아 혁명도 프랑스 혁명처럼 유럽 열강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했지만 유럽보다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 ④ 러시아 혁명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기를 기대했지만 러시아마저 자본주의화되어 버렸다.
- ⑤ 러시아 혁명 당시 러시아 지역에 살던 조선인들도 혁명에 참여해서 반혁명군과 싸웠으며 군대에서 지휘관 역할을 한 사람도 있다.

2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평가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보 기> —

러시아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나 우리나라의 6월 항쟁처럼 시민들이 체제에 저항해서 자발적으로 일으킨 혁명이 아니라 소수의 직업혁명가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기존 정부를 무너뜨린 군사 쿠데타에 가까운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이 볼셰비키 혁명은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보았으나 당시 러시아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불과했고 프롤레타리아, 즉 산업노동자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독일이나 다른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공산주의 70년의 실험이 끔찍하고 가공스런 인명피해를 남긴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러시아가 다시 자본주의로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수의 직업혁명가들이 사회구성원들의 총의를 무시한 채 일으켰던 러시아 혁명은 결국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① 혁명의 파장도 결과의 일부이므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친 러시아 혁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지금은 러시아가 자본주의화되었다라든 7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시작한 군사 쿠데타였지만 결국 다수의 시민들이 결집해서 기존 정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 ④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고 그런 실험이 70년간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혁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 ⑤ 제국주의를 타도하지는 못했지만 식민지화 된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월 15일 밤 여덟시 프랑크푸르트 공항. 루프트한자 170편 게이트를 찾아 기나긴 낱하를 걸어 뒤편행 비행기에 오른다. 게르만의 에너지가 물씬 느껴지는 우람한 체구의 스튜어디스가 머리를 질끈 묶고 여전사처럼 입구를 지키고 있다. 살가운 미소하나 없이 툭툭 끊어지는 언어에 경중경중 돌아다니는 그녀들을 보며, '비로소 독일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든다. 기내에 아시아인이라고는 나 하나,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다.

비행기 날개 불빛에 사선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보인다. 가을비에 세상은 축축이 젖어 있다. 문득 달콤 씹쓸한 고독감이 엄습한다. ㉠나는 지금 병에 걸려 있다. 병의 이름은 역마직성(驛馬直星). 늘 살아온 이곳이 아니라 살아본 적 없는 저곳으로만 향하는 이 갈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이곳'은 늘 나른하고 '저곳'은 늘 설레임과 신비로 다가오는가. 청년 이미륵도 그랬을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전신인 경성의전에 다니던 그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들연 머나먼 독일로 떠나 버렸다.

1920년대의 독일은 조선인에게서는 지도에나 있던 소문의 땅, 그는 문학자로, 자연과학자로 그곳에서 혼자 살다가 병고에 시달리며 가족도 없이 혼자 죽어 간다. 그의 나이 갓 원을 넘겼을 때였다. 남겨진 것은 독일어 소설 『암흑강은 흐른다』를 비롯, 다수의 독일어 시와 소설 그리고 한문 서예들. 그의 글은 독일어로 씌어진 가장 빼어난 미문이라는 평을 들으며 오랫동안 괴테의 글과 함께 중,고교 교과서에 실려왔다. 내가 이미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다였다.

뮌헨의 슈트라우스 공항에 내린 것은 밤 열시가 넘어서였다. 시내로 들어오는 길은 노란색 포플러와 은행나무 잎으로 수복다. 뮌헨 시내가 온통 노란색 낙엽에 묻혀 있는 형국이다. 슈바빙 거리 끝에 있는 이비스라는 작은 호텔에 누워서도 정신은 또렷하다.

그는 왜 학교를 중단하고 상하이까지 가서 그토록 어렵게 중국 여권을 얻어가며 독일로 가야 했을까. 왜 장래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접고 문학가의 길을 걸었을까. 죽음 직전,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암흑강은 흐른다』 속편 원고와 또 다른 원고들은 왜 스스로 불태워 버렸을까. 독일에서 왜 평생 독신을 고집했을까. 끝까지 그의 병상을 지키며 독신으로 지냈던 에파박사나 '동양의 천재'에 매혹되어 평생 그를 사모한 엘리제 지그문트와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만의 관계였을까. 『암흑강은 흐른다』는 물론 「무던이」, 「실종자」, 「탈출기」와 같이 거의 모든 독일어로 쓴 작품들이 모국에 대한 회상과 절절한 그리움으로 시종하고 있음에도 그는 왜 해방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침에 눈을 떠 커튼을 젖히니 창밖에 이슬비가 자욱하다. 포도 위로 젖은 잎들이 날아다닌다. 미등을 켜고 가는 자동차들이 내려다보인다. 호텔 식당에 내려가 '샘메트'라고 부르는 마른 독일 빵에 쓰디쓴 커피 한 잔으로 조반을 해결했다. 빵이 하도 딱딱해 입천장이 벗겨질 정도였다. 그래도 깨물다 보면 고소한 맛이 스며들었다. 독일의 문학 세계도 이 딱딱하면서 고소한 샘메트 맛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뮌헨 한글학교의 남진 선생과 함께 이미륵이 강의했던 뮌헨 대학으로 갔다. 캠퍼스가 따로 없는 대신 육중한 철문이며 돌기둥, 자연광이 떨어지는 구룡식 천장과 딱딱한 철 의자가 놓인 강의실 등에서 독일을 이끌고 가는 목직한 정신의 힘이 느껴졌다. 이미륵의 제재를 좇아온 독문학자 정규화 박사가 처음으로 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도 1965년 바로 이 대학 뒷골목 빌플레 고서점 여주인 로테 빌플레를 만나면서부터였다. 그녀는 강의 후 그곳에 들르곤 하던 한국인 '독토르 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빈 강의실에 들어가 혼자 앉아,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종횡무진 강의했던 이미륵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열렬

한 반일운동가였던 이미륵은 독일에 와서도 쿠르트 후버 총장의 만나치운동에 동조하였다. 후버 총장은 유명한 만나치운동 지도자였다. 이미륵이라는 자유와 지성의 불기둥은 언제나 반억압, 반독재의 편에 섰던 것이다

(중략)

언젠가 서울대학교 독문과 박환덕 교수 댁에 갔다가 휘갈겨 쓴 이미륵의 자작 한시를 본 적이 있었다. 10대에 조혼했다가 두고 떠난 아내에게 쓴 회한의 시였다. 한때 애타게 그리워했지만 부부인연이 다해 이별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한 눈물겨운 내용이었다. 내용도 내용이라니와 그 글씨의 골기 또한 빼어난 것이었다.

그의 묘소에 가기 전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얼핏 잠에 빠졌다. 비몽사몽, 눈앞에 푸른 밤안개의 강이 펼쳐져 있었다. 암흑강이라고 했다. 밤안개 속을 건너가는 한 청년이 보였다. 검은 두루마기의 그가 나를 돌아다본다. 귀골풍의 단아한 미남자였다. 참 잘생긴 얼굴이구나, 정신이 살아 있어, 요새 저런 얼굴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떴다. 짧은 꿈치고는 너무도 생생했다. 푸른 안개 속의 청년 이미륵의 모습은 잠을 깨고서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29.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환상적 배경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여정을 따라가면서 서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여러 인물들의 내면을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0.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륵의 생애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이미륵은 독일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영역에서도 활동하였다.
- ② 이미륵은 독일에서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 ③ 이미륵은 조선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상하이를 통해 독일로 건너갔다.
- ④ 이미륵은 독일의 뮌헨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만나치운동에 가담하였다.
- ⑤ 이미륵은 독일에서 인기를 얻은 소설의 발간되지 않은 속편을 창작한 바 있다.

31. 윗글의 ㉠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이미륵의 삶에 대한 서술자의 공감적 태도를 보여준다.
- ② 서술자의 태도를 '병'에 비유하여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 ③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고자 했던 과거에 대한 서술자의 후회를 드러낸다.
- ④ 이미륵의 삶을 서술자의 삶과 대조적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 ⑤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서술자가 처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32. 아래 그림은 윗글의 저자가 '이미륵의 삶'을 그린 것이다. 그림을 본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다양한 방향으로 뻗친 곡선은 이미륵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상반된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군.
- ② 망망대해에 떠있는 그림 속 인물의 모습은 고향을 떠나 홀로 살았던 이미륵의 외로운 삶을 형상화하는 것이군.
- ③ 구체적인 배경을 생략한 것은 이미륵이 조선을 떠나 자신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그림 속 인물의 모습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미륵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군.
- 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와 대조적으로 그려진 정적인 인물의 모습은 독일에 살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미륵의 삶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고관절 수술 등으로 몇 년 새 몸이 부쩍 약해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만기로 하고 병수발을 들러온 새어머니 서령덕은, 막내딸 경은에게, 아파트를 서령덕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한 아버지의 말이 열린 실행되었으면 하는 말을 꺼냈다. 그러나 평소에도 핏줄에 유독 집착을 하던 아버지는 같이 살던 서령덕도 믿지 못해, 당장 명의를 변경해주기를 꺼려했다. 보다 못한 경은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파트를 서령덕에게 주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 몇 달 전 뇌출혈로 아버지가 쓰러졌고, 병상을 지킴다 돌아가셨다.

[본문]

치마를 들추고 꺼내던 휴대폰이 그만 미끄러진다. 몸을 구부려 휴대폰을 집어들면서 경은은 아차, 싶어진다. 무릎을 이렇게 날렵하게 접는 게 아닌데. 다행히 식구들은 막 시작된 달구질에 신경이 팔려 있다. 경은은 달구질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숲 쪽으로 다가가든다.

“여보세요.”

“김경은 씨? 여기 마리아입양원이에요. 축하드려요. 아기가 왔어요.”

땅을 다지던 달구대가 가슴을 지른 것만 같다. 경은은 문득 뒤를 돌아본다. 어머니의 봉분 곁에서 달구질이 한창인 사람들. 그 곁에 서서 바라보는 상제들의 하얀 옷이 한꺼번에 물러나는 듯하다.

“듣고 계세요? 건강하고, 아주 예쁜 아גיע요.”

어렵사리 임신하고도 임신 초기 번번이 유산하는 게, 경은의 약한 자궁뿐 아니라 남편의 유전자 결함에도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 난 뒤에야 남편은 입양에 동의했다. 몇 년 전, 경은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성장해 돌아와 엄마를 찾는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입양 이야기를 꺼냈을 땐 달랐다. ㉠어떤 놈 씨인 줄도 모르는데..... 나중에 생모가 나타나면 어쩌려고..... 남편은 팔짝 뛰었다. 나랑 다시 안 붙 생각이라면 그렇게 해라. 경은의 아버지는 아예 의절을 선언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언니들도 그에 못지않았다. ㉡네가 속 썩으며 살 게 뻔한데,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 (중략) 거짓신 기간 동안, 우주 어딘가를 떠돌다 열 달 동안 감싸였던 자궁을 떠나 아기의 몸으로 자기에게 올 영혼을 생각하면 형체 막연한 슬픔이 촘촘한 밀도로 경은을 감아들었다. 슬픔은 어느 곁에 경은의 살갗으로 스며들어 심장을 조였다.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한 태몽을 지어내며, 축하인사를 받으며, 위장용 복대를 두르며 경은은 중얼거렸다. 아가, 미안하다. 아기를 환하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맞아들이지 못하고, 거짓으로 그늘진 뒷문을 통해 개구멍반이로 받아들이는 게 미안했다. 마음속에 고인 말은 줄기부터 흐물흐물 썩어들어 물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제 안의 피사(壞死)를 지켜보며 경은은 자주 울었다. ㉢아기를 품고 키워 져 한 번 못 물리고 떠나보낼 생모를 생각하며 울고, 임신기간 동안 늘어나 탄력이 줄어들었을 그녀의 배를 떠올리며 울고, ㉣내 핏줄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으려 하는 차가운 세상에 던져질 아기를 생각하며 울고, 끝내 공개입양을 고집하지 못한 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며 유폐하는 자신 때문에 울고, 아버지가 수술한 뒤로는 죽음 앞둔 아버지의 고독을 어둡하며 울었다. 육 개월용 복대를 풀고 구 개월용 복대를 처음 두르던 날엔, 옷 아래로 덩두렛이 부푼 배가 생명을 담고 오는 배(船)가 아니라 거짓말로 쌓아올린 봉분이라는 생각에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이것저것 물어올 동네 주부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시각을 틈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쇼펍 센터에서 아이의 배내옷이며 속싸개, 분첩이며 면봉 같은 자

잘한 물품을 장만할 때의 그 아기가 자기함에도 숨기는 여지없이 배어들었다. 가족들은 임신우울증인 줄 알고 있었다. 무덤 속 같은 나날이었다.

무덤 속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들. 자기라는 존재에 눈뜨게 된 아이는 말간 눈으로 저의 탄생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엄마 엄마, 그런데 그때 말이야..... 그럴 때마다 경은은 가슴에 거짓의 벽들을 하나씩 더 없게 될 것이다. 기나긴 윤희의 시간, 경은은 대숲 앞의 복두쟁이처럼 위태로웠다. 어쩌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의 얼굴이 살랑이는 대숲처럼 보였다. 경은은 말하고 싶었다. 자신이 포태한 건 생명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삼우제를 모시고 돌아간 날 밤, 경은은 예정일보다 석주쯤 앞서 갑작스런 진통을 느낄 것이다. 여기저기 알릴 겨를도 없이 양수가 터지고, 그래서 아무 산부인과나 들어가 몸을 풀 것이다. 병원이 너무 시끄럽거나 불결해서, 경은은 다음 날 아침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끼고 누울 것이다. 낳은 지 일주일쯤 지난 아기는 갓난아기나 다름없어 보일 것이다. 뜻하지 않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임신을 한 어린 미혼모들은 임신기간 동안 여느 임부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기가 보통보다도 작은 편이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장례는 경은의 조산에 더할 나위 없는 타당성을 부여하리라.

[가] 경은은 제 비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단 한사람, 남편에게 자신들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걸음으로 봉분 쪽으로 다가간다. 그새 봉분은 봉긋하니 올라갔다.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봉분 중간을 빙 둘러가며 끼워 넣은 술가지가, 나와 남 사이에 그토록 선명한 금을 긋고, 그토록 오랜 세월 불안을 견디며 살아낸 한 생애의 이마 위에 얹힌 화관 같다. 경은이 남편을 부르려는데, 나뭇가지를 모아 만든 등우리를 봉분 꼭대기에 얹어놓으며 누군가가 외친다. 이 집 사위들 다 어디 갔어? 새집 지어야지.
-이혜경, 「피아간」

33. 윗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2점]

- ① 경은은 남편 몰래 입양을 결정하였다.
- ② 경은은 실제 임신하지 않았지만 몸에서 산통을 느꼈다.
- ③ 경은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만 입양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 ④ 경은은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기를 입양하기로 했다.
- ⑤ 경은은 입양할 아기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아버지 장례 중에 듣는다.

34. 윗글에 나타난 서술 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인물 간의 대화가 주를 이루어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이야기에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내적 독백의 삽입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의 서술을 통하여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순서 없이 나열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35. 다음 중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인 [가]에 대한 해석과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지은: 봉분이 봉긋하게 올라간 모양은 상속과 입양 문제로 아버지와 의절한 경은의 커다란 회한을 뜻하고 있어.
- ② 한영: 봉분의 봉긋한 모양이나 경은이 배가 부른 모양은, 경은이 감당할 비밀의 무게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 ③ 연주: 술가지를 두른 모양이 아버지의 삶에 바치는 화관과 같다는 것은, 새어머니도 완전히 믿지 못하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대한 경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어.
- ④ 태훈: 누군가가 사위들을 부르는 대목은, 아버지의 피를 직접 받지 않은 사위들도 한 가족으로서 장례 절차 안에서 역할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 ⑤ 경림: “새집 지어야지”라는 말로 이 소설이 끝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기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36.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친 ㉠~㉣을 감상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그 밖의 사회관계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족주의라고 한다. 한국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주의는, 공도 있지만 과도 크다. 부모를 자식에게 예측된 것으로 보거나 개인을 집안에 예측된 것으로 보아 구성원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 혈연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배타적인 경향이나 가족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 ① ㉠“어떤 놈 씨인 줄도 모르는데”라는 말은 태생이 중요하다는 남편의 틀에 박힌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내가 속 씌으며 살 게 뻔한데”라는 말은 혈연이 아니면 가족이 되어 살기 어렵다는 언니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아기를 품고 키워 젖 한번 못 물리고 떠나보낼 생모를 생각하며 울고”라는 말은 경은의 ‘낳은 정’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내 핏줄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으려 하는 차가운 세상”이라는 말은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아이가 소위를 겪지 않을까 하는 경은의 걱정을 담고 있다.
- ⑤ ‘나와 남의 사이’를 뜻하는 ㉤“피아간(彼我間)”이라는 제목은, 내 핏줄과 남을 철저히 구분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서전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는 다음의 질문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서전과 작가의 경험을 반영한 자전적 소설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텍스트 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른다. 소설은 이야기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서전이 사용하는 수단들을 모방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작가의 경험은 소설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살롯 브론테는 『제인 에어』를 비롯하여 자신의 일생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많은 소설들을 남겼으며, 막심 고리키는 『유년시대』에서 소년 ‘알료샤’를 통해 유년기 시절의 고통과 성장과정을 자전적으로 그려냈다.

1인칭 서술자를 사용한 위 소설들은 자서전과 마찬가지로 화자와 주인공의 동일성을 통해 서사의 진실성을 획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론테나 고리키의 작품은 자서전과 혼동되지 않는다. 독자들이 그것을 소설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텍스트의 내용이 아니라 책의 제목이 써여 있는 표지에서 찾을 수 있다. 책의 표지에는 반드시 저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는 작가와 화자-주인공이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18~19세기의 서구 소설들은 수상록, 서한집, 내면 일기 등을 표방하며 자서전을 적극적으로 모방했지만, 그것은 저자 자신의 이름이라는 최후의 항목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즉, 소설이라는 장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주인공의 이름에 저자의 실명을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내용의 유사성은 때때로 자전적 소설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지만, 자서전에서 그것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자서전을 증명하는 보편적 기준은 저자-화자-주인공의 동일성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의 이름이 들어간 자서전의 표지는 저자와 화자, 주인공의 동일성을 보증해주며, 이것이야말로 자서전과 소설을 정의해 주는 텍스트의 내적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표지에 적힌 소설 혹은 자서전이라는 부제는 이야기의 내용이 허구인지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표식이자, 독자와의 규약이 된다. 표지에 적힌 자서전이라는 부제를 통해 작가와 독자는 각각 자서전을 쓰고 읽겠다는 서로간의 약속을 하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자서전의 규약이란 작가가 자신의 서명이 올바르다는 것을 표명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또한 독자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작가와 주인공이 동일하지 않은 자전적 소설의 경우, 독자는 허구적인 설정 가운데에서도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을 찾으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자서전처럼 작가-주인공의 동일성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면, 독자는 반대로 작가의 실수나 의도된 왜곡 등으로 발생한 둘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싶어 할 것이다. 독자는 약속이 파기된 곳을 찾아다니기를 즐기며, 작가의 진술과 관계없이 자기가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여기에서 소설이 자서전보다 더 진실하다고 여겨지는 ㉠소설의 신화가 생겨나게 된다.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서전과 소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체결한 규약, 그리고 저자의 이름과 주인공의 이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서전이 되기 위해서는 제목이나 부제가 저자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거나, 이야기 속에서 서술자의 이름이 저자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반대로 소설의 경우 저자와 주인공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하고, <소설>이라는 부제 등을 통해 이야기의 내용이 허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자서전과 소설을 이와 같이 정의 내린다면 ‘주인공의 이름’과 ‘규약의 본질’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각각 세 가지 상황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주인공의 경우 1) 저자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고, 2) 이름을 갖지 않을 수도 있으며, 3) 저자와 같은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 규약의 경우 1) 소설이라는 부제(副題)를 가질 수 있고, 2) 부제(不在)할 수 있으며, 3) 자서전이라는 부제를 가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의 조합을 통해 수학적으로 9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설과 자서전이 놓일 자리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37. 위글의 중심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서사의 사실성과 진실성
- ② 자서전과 소설의 1인칭 서술자
- ③ 자전적 서사 형식의 발달과 변화 양상
- ④ 자서전과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공통점
- ⑤ 표지의 규약을 통해 본 자서전과 소설의 구별

38. 밑줄 친 ㉡을 믿는 독자가 작가와 주인공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에 대해 추론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판소리계 소설들은 작가가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의 주인공에게는 작가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시대적 사상이 반영되어 있겠군.
- ② 현진건은 『운수 좋은 날』에서 하층민을 통해 식민지의 피폐한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주인공 인력거꾼은 일제에 대한 현진건의 비판 의식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야.
- ③ 농촌을 배경으로 한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하지만 김유정은 철들기 전 상경했다고 하니, 그들의 사랑에 작가의 경험이 반영되지는 못했을 거야.
- ④ 소설 『윤광호』의 주인공은 동성애자였군. 작가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작가가 주인공 공처럼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작가는 동성애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 분명해.
- ⑤ 일제 말기 작가들은 친일적인 글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소설에서는 고뇌하는 주인공을 그려내고는 했어. 그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른 주인공을 내세워서 스스로의 비겁함을 감추려 했던 거야.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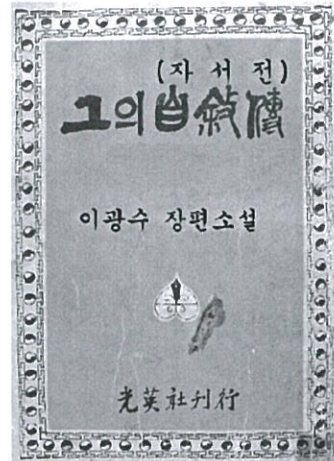
“나는 고양이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아무튼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데서 야옹야옹 울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위의 인용문은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첫 부분이다. 중학교 교사의 집에 사는 고양이가 사람들을 관찰하며 인간의 이기심과 위선, 욕망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고양이를 1인칭 관찰자 서술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소설이다. 한 편의 재미있는 우화 같지만 이 소설을 쓰던 시기, 나쓰메 소세키는 낯선 영국에서 유학하며 인종차별과 항수병 등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의 유학생생활을 기록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늑대의 무리 속에 끼어 있는 개 한 마리와 같은 가련한 처지로 생활하고 있다.”

- ① 괴로웠던 자신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고백된다는 점에서 소세키의 기록은 자서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어.
- ② 서술자 ‘나’가 소설에서는 고양이로, 기록에서는 개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문학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
- ③ 소세키의 소설과 기록은 같은 시기 창작되었음에도 서로 다른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장르의 본질적 차이를 엿볼 수 있어.
- ④ 유학생생활을 기록한 글의 경우 “가련한 처지로 생활하고 있”는 ‘나’의 이름과 표지를 확인함으로써 자서전 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
- ⑤ 위 소설은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데서” 유학하고 있는 저자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니까 내용적 유사성의 측면에서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

40. 다음은 ㉠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표이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 중 <보기>의 책이 들어갈 곳과 장르가 적절히 연결된 것은? [2.5점]

<보 기>



양복 입은 쾌활하고 잘 생긴 친구가 먼저 입을 열어 나를 향하여, “남궁석씨 아니시오?” 하고 말을 붙였다.

그 무서운 침묵이 깨어진 것이 어떻게나 시원한지, 나는, “네 그래요. 나 남궁석이 야요.” 하고 말하고 너무도 기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

M은 먼저 뚱뚱하고 는 가는 친구를 나에게 소개하였다. 그는 C라는 사람ियो, 다음에 청복 입은 친구를 소개하였다. 그는 S라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이름난 사회주의 이론가가 되었다가 부산에서 물에 빠져서 자살한 사람이다.

(이광수, 『그의 자서전』, 삼중당, 1972, 352면)

주인공의 이름	저자와 다름	이름이 없음	저자와 동일함
규약			
소설의 규약	㉡		㉢
규약의 부재	㉣		
자서전의 규약	㉤		㉥

- ① ㉡ - 소설
- ② ㉢ - 소설
- ③ ㉣ - 자서전
- ④ ㉤ - 소설
- ⑤ ㉥ - 자서전